

들꽃편지 667

2024.8.22. 처서
<https://cyw.pe.kr>

눈이 활짝 열린 사람

사랑하는 자매님 형제님 안녕하세요?

깨어 있어 기도하라.(막14:38) 예수님께서 셋새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를 하실 때, 자신의 기도를 다 마치고 오셔서 마지막으로 '깨어 있어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기독교 신앙이 2천년 이상 견고하게 영성의 물줄기를 흘려보내며 지속되고 있는 이유는 산 아래 있는 66%의 교인들도, 산 위에 있는 21%의 신자들도, 가룟 유다같은 12%의 열심당원들 때문도 아닙니다. 눈이 활짝 열려 환한 영의 세계를 보고 영적인 현실성을 맞보며 숨어있는 1%의 어떤 사람들 때문입니다.



숨어있는 1%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과거에 <숨어있는 1%를 찾아드립니다.>라는 어떤 텔레비전 광고가 있었습니다. 텔레비전 화면의 양쪽 끝에는 화면에 나오지 않는 1% 정도의 숨겨진 화면 있는데 그것까지 다 보여주는 TV라는 광고였습니다. 성서 기자들과 지난 기독교 역사에서 또렷한 족적을 남긴 영성의 거장들, 신앙의 선배들이 바로 그런 1%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눈이 활짝 열려 생명의 빛을 만난 깨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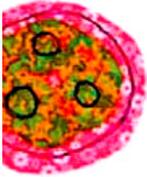
오늘날도 몇천억짜리 거대한 건물을 지어놓고 대장 노릇하는 사람들이나 자신의 이름한번 내보겠다고 선거판에 뛰어든 사람들이나 실체가 없는 단체를 만들어서 무슨 운동을 하며 대대적으로 떠드는 사람들에게 '영계의 비밀'이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들판에서 고독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묵묵히 기다리는 사람들이 '깨어나는 새벽'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어둠에 잠겨있는 세상에서 서서히 밝아오는 여명을 기다리며 묵묵히 영적인 구도자의 길을 가는 숨어있는 1% 하나님의 사람들 때문에 오늘날 그나마 기독교가 숨이라도 붙어있음!

♥숨어있는 1%가 되고 싶은 최용우 올립니다.

숨바꼭질

중촌 마을 정물순



오만테

칼같이 다 숨었는 걸

팔십 넘어 알았 다

낫호미 괄이 속에

가 가 가

부침 개 접시 에

오 오 오

달아 놓은 꽃감엔

응 응 응

제아 무리 숨어 봐라

인자는 다 보인 다



한번 글을 배우고 나면
 다시는 문맹의 시기로 돌아갈 수 없지요.
 ‘오만테’ 숨어있던 글자들이 다 눈에 들어옵니다.
 “제아무리 숨어 봐라. 인자는 다 보인다.”
 할머니는 그동안 까맣게 몰랐던
 숨바꼭질의 재미에 신이 난 듯합니다.

울법과 거울

넘어지지 않은 자를 일으킬 수 없고,
잠들지 않은 자를 깨울 수 없고,
죽게 되지 않은 자를 살려낼 수 없다.
인간의 죄를 죄로 드러내는 것이야말로
거룩한 계명의 선한 사명이다.

맑은 거울이 더러움을 드러내어
사람을 깨끗함으로 이끌 듯이,
계명은 “죄로 심히 죄 되게 하여”
결국 죄인으로 하여금
구원의 손길을 바라보게 한다.

©이현주/ 목사, 동화작가



회개58 찬밥 한덩어리

성서의 핵심진리 강해의 글을 인용하면
“음식을 먹을 때는 짜네, 맵네, 싱겁네, 하며 행동을 나타내는 것은
식욕의 지배를 받는 육적 행실이며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하여는
철저히 회개 하고 매일매일 이런 식욕을 절제 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아내와 같이 집 가까이 있는 칼국수집에 갔습니다. 뜨근하고 얼큰한 칼국수 한
그릇을 먹고 싶었지만 아내가 시원한 냉콩국수를 먹고 싶다고 하기에 냉콩국수를
주문하였습니다. 아내는 맛있다고 먹지만 저는 찬 음식을 좋아하지 않기에 조금
먹는 체 하다가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끝내 집에 오면서 중얼거리듯 투덜거렸습니다.

“맛도 디게 없네.” 맛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찬 음식을 잘 먹지 못하기에 돈만
지불하고 먹지 못했다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비위가 약하여 다른 사람들은 맛있게
먹는데도 늘 음식 앞에서 투정합니다.

“짜네, 싱겨우네, 텅텅하네, 다네, 멍승멍승하네, 쓰네...”

이것 때문에 아내가 힘들어합니다. 식사를 준비하면서 먼저 손가락으로 국물을
떠 간을 보라고 합니다. 저의 입맛에 맞추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늘 그럽니다. “난 왜 간을 맞추지 못할까?” 간을 맞추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비위가 약하여 내 입맛이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식욕의 지배를 받은 육적 행실이라는 것을.....

“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찬밥 한 덩어리만 있어도 감사히 맛있게 먹겠습니다.”



©손제산 목사 (은퇴 목사)

아파트 경비원으로 첫날 근무하는데 아파트 관리소장님이 왕년에
목사님이 셤다며 할머니들에게 인사를 시킵니다. 그 후 할머니들
은 저를 ‘목사님 아저씨’라고 부릅니다. 어린 공주님도 배꼽 인사
를 하면서 “목사님 아저씨 안녕 하세요?” 은퇴 후 새로 생긴 이름
‘목사님 아저씨’ 저, 괜찮은 것 같네요.

하나님의 존재 (2)



토마스 아퀴나스<신학대전>1부 제1권 (1-12)
 S.T Aquinatis 지음/정의채 옮김
 751쪽 69,000원 바오로딸 1985, 2021

- 7.하나님의 무한성에 대하여
- 8.사물에 있어서 하나님의 실재에 대하여
- 9.하나님의 불변성에 대하여
- 10.하나님의 영원성에 대하여
- 11.하나님의 일체성(단일성)에 대하여
- 12.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인식되는가에

7.하나님의 무한성에 대하여

- ①하나님은 무한하지 않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유한과 무한은 물체의 양(量)을 측량하는 단위”라고 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물체가 아니시기에 ‘유한’이나 ‘무한’같은 양이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본질은 유한하지도 무한하지도 않다.
- ②하나님 외에도 본질에 의해 무한한 것은 있다. ‘무한한 능력’을 갖는 것은 무엇 이든지 다 ‘무한한 본질’을 갖는다. 예를 들면 창조된 지성은 무한한 개별체에 무한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무한한 능력을 가지며, 그 창조된 지성적 본질은 무한한 것이다.
- ③어떤 것은 크기에 있어서 무한할 수 있다. 수학자들은 ‘추상된 것은 거짓이 아니다’라고 하며 계산을 할 때 무한을 사용한다. 기하학자들은 ‘이런 선(線)은 무한하다’라고 한다. 고로 어떤 크기가 무한하다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 ④무한(無限)이 실재에 있어서 다(多)로 존재할 수 있다. 대립되지 않은 것은 서로 방해하지도 방해받지도 않는다. 방해가 없으면 무한히 나아갈 수 있으므로 현실적으로 무한이 존재하는 것은 가능하다.

8.사물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실재에 대하여

- ①하나님은 모든 것 안에 존재하지 않는다. 어떤 것 안에 있는 것은 그것에 포함된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것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떤 것이 하나님 안에 있다. 어거스틴도 “하나님이 어디에 있다기보다 만물이 하나님 안에 있다”고

했다. 오히려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존재한다.

②하나님은 어디든지 존재(遍在)하지 않는다. 비물체적인 것은 장소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비물체이신 하나님께서 어떤 장소에 존재한다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고로 하나님은 어디든지 존재한다는 말은 모순이다.

③하나님은 본질에 의해, 현존에 의해, 또 능력에 의해 어디든지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실존 양식을 잘못 귀속시키는 것이다.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사물 안에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은 쓸데없는 것이다.

④어디든지 있다는 것(편재)은 하나님께 고유한 것이 아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디나 언제나 있는 것을 보편(普遍)”이라 했다. 보편은 수(數)로 세어지는 것인데, 하나님은 수로 세어지는 분이 아니니 보편적이 아니시다.

9.하나님의 불변성에 대하여

①하나님은 절대로 움직이지 않는 것(불변성)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에게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약4:8)라고 한 것으로 봐서 하나님은 움직이신다.

②불변한다는 것은 하나님께만 고유한 것은 아니다. 운동하는 모든 것에는 질료가 있다. 그런데 천사나 혼과 같은 실체들은 질료가 없다. 질료가 없으면 운동도 없으니 불변이다. 그러므로 하나님만 불변인 것은 아니다.

10.하나님의 영원성에 대하여

①영원성이란 ‘끝없는 생명의, 동시에 전체적이며, 완전한 소유’라는 정의는 적절하지 않다. ‘영원성’이란 어떤 지속(持續)을 의미한다. 그런데 지속은 ‘존재’에 관련된 단어이다. 존재는 유(有)이다. 하나님은 유(有)도 아니고 무(無)도 아니시므로 그러므로 하나님은 ‘영원하시다’고 할 수 없다.

②하나님은 영원하지 않으시다. 영원성이란 만들어진 어떤 것에 적용되는 단어이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 아니라, 영원성을 만드신 분이시다.

③영원하다는 것은 하나님께만 고유한 것이 아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취리라’(단12:3)라고 한다. 만약 하나님만 영원하시다면 많은 영원들은 없을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만 영원한 것은 아니다.

④영원성은 때와 다른 것이 아니다. 영원성과 때는 동시에 존재하며 이 둘은 다 지속의 어떤 척도를 갖고 있다. 그러므로 때는 영원성의 한 부분이다.

⑤유구(悠久)는 때와 다른 것이 아니다. 유구는 ‘아득하게 오래된 옛날’이라는 뜻인데, 유구의 지속은 무한하며 때에 의해 한정되지 않는다.

⑥다만 하나의 유구만이 있는 것은 아니다. 각기 다른 사물들에는 각기 다른 척도

가 있다. 그런데 어떤 유구는 천체와 같이 물체의 유에 속한 것도 있고, 천사와 같이 신령한 실체들도 있다. 그러므로 하나의 유구만 있는 것은 아니다.

11.하나님의 일체성(단일성)에 대하여

①일(一)은 유(有) 위에 어떤 것을 첨가한다. 일(一)은 어떤 규정된 유(類) 안에 있다. 일(一)은 수(數)의 근원이며 수는 양(量)의 종(種)이다. 그러므로 일은 유 위에 어떤 것을 첨가하는 것이다.

②일(一)과 다(多)는 대립하지 않는다. 다(多)도 어떤 의미로는 일인 것이다.

③하나님은 하나가 아니다. 수는 질료를 가진 존재가 있는 것에게 서술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질료가 아니기 때문에 숫자가 아니다. 고로 하나님은 하나(一)라는 숫자가 아니다.

④하나님은 최고로 큰 하나가 아니다. 하나(一)라는 것은 나눌 수 없는 불가분의 것이다. 하나는 크고 작은 것이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다른 것들에 비해 가장 큰 하나라고 할 수 없다.

12.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인식되는가에 대하여

①창조된 어떤 지성도 하나님을 그 본질에 있어서는 볼 수 없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요 1:18) 창조된 피조물은 비창조적인 것을 볼 수가 없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나님은 당신의 모습을 당신의 아들 예수에게 투영하여 부분적으로 당신의 모습을 인식하게 하신 것이지만 그래도 인간은 하나님의 본질을 볼 수 없다.

②하나님의 본질이 지성에 의해 보여지는 것은 창조된 어떤 유사(類似)를 통해서이다.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요일3:2)

③하나님의 본질이 인간의 눈에 의해 보여질 수 있다.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욥19:26)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뵈옵나이다.”(욥42:5) 그런데 그것은 표상적 직관으로 보는 것이지 감각적 직관으로 보는 것이 아니다. 육체적 감각은 자연 본성을 넘여가기 때문에 비물체적인 실체를 이해할 수 없다.

④창조된 지성은 자기의 자연본성적(인간이 자기 보존, 종족 보존, 신과 사회에 대한 진리 파악 같은 본성적으로 지니는 자연적 성향)인 것에 의해 신적 본질을 볼 수 있다. 시각은 전적으로 물질적인 것이기 때문에 결코 비물질적인 것을 볼 수가 없지만, 그러나 우리의 지성은 그 본성상 어느 정도의 은총에 의해 자기의 자연본성을 넘어 더 높은 어떤 것을 볼 수가 있다.

⑤창조된 지성은 하나님의 본질을 보기 위해 어떤 창조된 빛을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 감각적 사물계에서는 보여주기 위한 빛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빛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꿈을 보기 위해서 빛이 필요한 것은 아닌 것처럼.

⑥하나님의 본질을 보는 자들 중에서 한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더 완전하게 보는 것은 아니다.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요일3:2)라고 했다. 하나님은 한 양식으로 모든이에게 보여질 것이기 때문에 더 완전하게, 덜 완전하게 라는 차이가 있을 수 없다.

⑦하나님을 본질에 의해 보는 자는 하나님을 파악한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빌3:12) 바울도 하나님을 파악하기 위해 힘껏 달려간다고 한다.

⑧하나님을 그 본질에 의해 보는 자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안에서 본다. 모든 것을 보는 이를 보는 자들이 보지 못할 것은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보는 자는 누구든지 다 있는 모든 것과 이루어질 수 있는 모든 것을 보는 것이다.

⑨하나님의 본질을 보는 자가 하나님 안에서 보는 것은 어떤 유사를 통해서 보여진다. 모든 인식은 인식하는 자의 인식되는 것에 대한 동화(同化)로 이루어지는데, 그러므로 하나님을 그 본질에 의해 보는 지성이 어떤 피조물들을 하나님 안에서 인식한다면 이때 지성은 피조물들의 유사에 의해 형상을 받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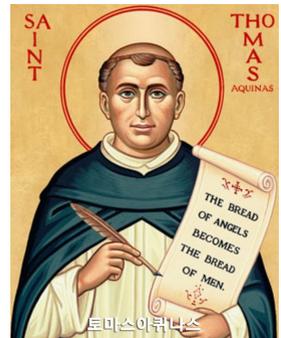
⑩하나님을 본질에 의해 보는 자는 하나님 안에서 보는 모든 것을 동시에 보지는 않는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지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라고 했다. 하나님은 지성적 이해로 보여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보는 자는 하나님 안에서 많은 것을 동시에 볼 수는 없는 것이다.

⑪이 세상 삶에서 하나님을 본질에 의해 볼 수 있는 사람은 있다.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전되었다.'(창32:30)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 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고전13:12)

⑫우리는 이 세상 삶에서 자연본성적인 이성으로는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다. 이성은 단순형상을 포착할 수 없다. 하나님은 최고도로 단순한 형상이다. 그러므로 자연본성적 이성으로는 하나님 인식에까지 도달할 수 없다.

⑬자연본성적 이성으로 인해 얻는 인식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인식이 은총에 의해 얻어지지 않는다는 뜻이다. 은총 또한 자연본성적 이성을 통해서만 인식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갑자기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에 하나님에 대한 없던 지식이 막 생겨나거나 하지는 않는다는 뜻이다.

○정리:최용우



좋아

고요가 좋다
나무도 좋다
바위도 좋다
한적한 산길

산비둘기 울고
오서기 오르락 내리락
송충이는 대롱대롱
산은 살아있다.

산에 취해 있다가
문득 정신 차려보니
어디로 갔을까
시간이 사라져 버렸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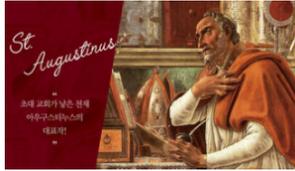
최용우 제9시집<일출봉에 햇별이 짙하오>

시작노트

시간이라는 것은 원래 똑같은 길이가 아니고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길기도 하고 짧기도 한 것입니다. 시계로 보면 똑같은 한 시간인데 어떤 순간은 정말 길디깁니다. 어떤 순간은 정말 짧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루 24시간'이라는 이름으로 정리된다는 것은 정말 신비 중의 신비입니다. 산길을 걷는 두 시간 동안 정말 전혀 시간을 1도 의식하지 못했습니다. 문득 정신을 차리고 보니 그냥 두 시간이 없어져 버린 것 같았습니다.

	<p>비학산 일출봉 시인의 산중 연가(山中戀歌)</p> <p>일출봉에 햇별이 짙하오</p> <p>최용우 지음 210쪽(올컬러) 13600원</p>		<p>꽃같은 그대 있어 이 세상이 꽃 같습니다</p> <p>아내에게 바치는 시</p> <p>최용우 지음 216쪽(올컬러) 15000원</p>
--	--	--	---

두 나라의 참된 기원-천사들의 순종과 반항



298. 천사는 자신의 미래 모습을 예지했는가

주님은 복음서에서 악마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요8:44) “사실 죄는 처음부터 악마의 짓입니다”(요일3:8)

299. 악마가 진리 속에 없었던 이유

“저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요8:44)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그는 진리 속에 없었던 것이다.

300. '악마는 처음부터 죄를 저질렀다'는 말의 의미

이 말씀은 악마가 창조된 처음부터 죄를 지었다는 뜻이 아니고, 오히려 악마의 오만 때문에 '죄가 처음으로 생겨났다'는 의미로 생각하여야 한다.

301. 피조물의 가치 기준

피조물 속에 생명을 가진 것은 생명을 갖지 못한 것보다 뛰어나다. 생식능력이나 의욕을 가진 것은 이런 능력이 없는 것보다 뛰어나다. 또 생명을 가진 것들 가운데 감각이 있는 것이 그렇지 못한 것보다 앞선다. 그래서 동물이 나무보다 위다. 또 감각이 있는 것들 가운데서 지성을 갖춘 것이 지성이 없는 것보다 높다. 그래서 사람은 짐승보다 앞선다. 또 지성이 있는 것들 가운데서 죽지 않는 것이 죽는 것보다 높다. 그래서 천사들은 사람들보다 높은 것이다.

302. 악은 피조물의 본성에서 비롯되지 않는다

신에게서 멀어지면 피조물에게 결합이 생기고 신과 함께 하는 것이 가장 마땅한 일이지만 만일 그렇지 않다면 신으로부터 멀어져도 자연본성이 손상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악한 본성은 자연본성이 선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

-(계속)

설교...(3)



2. 목적을 못 맞추는 설교

기독교에서 건드리면 큰일나는 설교(說敎)가 교회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하면 다섯째는 현대 설교는 완전히 비현실적이며 비효율적이어서 마치 마른 땅에서 수영 이론을 가르치는 것 같습니다. 엄청난 양의 설교가 발사되지만 명중율이 너무 형편없어서 대부분의 설교가 허공으로 바람처럼 날아가 버립니다.

오늘날 세련된 설교는 '지정의'를 자극하여 귀를 즐겁게 하고 가슴을 따뜻하게 하고 의지를 발동시키고 마음에 췌한 감동을 주어서 "아이고, 은혜 받았습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냥 '끝!'입니다. 현대 설교는 청중들의 뒤뇌 앞부분만 겨냥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대뇌는 주어진 정보를 열심히 저장합니다. 그래서 대뇌가 가장 큼니다. 그러나 주어진 정보를 행동으로 옮기는 소뇌는 뒤쪽에 조그맣게 붙어 있습니다. 이 소뇌에까지 설교가 전달되어야 사람들은 '실천'이라는 것을 하는데, 설교는 대뇌에만 머무를 뿐 소뇌까지 가지 않습니다.

그리스,로마식 수사학은 듣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대뇌를 자극하는 온갖 화려하고 현란한 지적 지식을 뽐내려는 목적을 가지고 설계된 논이기 때문에 그 뿌리가 그리스,로마의 수사학인 '설교'는 들으면 들을수록 영혼은 더욱 메말라 가고 순간적인 흥분제를 맞는 것 같은 효과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좀 솔직해져야 합니다. 왜 교인들이 평생 설교를 들어도 영적 어린아이를 남아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성경은 '설교를 듣고' 그리스도를 만난다고 하지 않고 '영광중에, 고통 중에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고후3:18, 히12:1)
(7792)

22. 설교의 특권화

기독교에서 건드리면 큰일나는 설교(說敎)가 교회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하면 여섯째는 설교의 특권화입니다. 루터와 칼빈의 최대 실수는 목사직을 직업화하고 설교를 특권화한 것입니다. 성경을 사제들만 읽고 사제들만 강연했던 가톨릭을 반대해서 종교개혁을 했으면서, 그것이 목사들만 성경을 선포하고, 목사들만 가르치고, 그리고 목사들만 설교한다면 가톨릭과 뭐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개신교는 '공교회'를 목사만 말을 할 자격이 있는 이상한 '개교회'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는 담임 목사의 안방이 되어버렸습니다. 일부 목사들은 설교 시간에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해서는 안 될 말까지 합니다. 더 나쁜 것은 그런 자기 말을 마치 '하나님 말씀'처럼 포장합니다. 장기간 한 설교자에게 집중적으로 세뇌된 맹신도들은 지금 자기 교회가 '방주'인지 '해적선'인지 구별조차 못합니다. 그럼에도 한국 교회에는 설교에 오류나 변질이 있을 때 이를 시정하고 교정할 제도적 장치조차 없습니다.

성경에는 목수도 설교를 했고, 어부도 설교를 했고, 의사도 설교를 했고, 스테반과 빌립은 집사인데 설교를 했습니다. 자격을 갖춘 특별한 사람들만 설교를 한 것이 아닙니다. 신학교에서 몇 년 공부한 것으로 정말 예배당 강단을 그렇게 높게 쌓아야 하는 것인지... (예고, 난 모르겠다.)

제가 어떤 교회에 갔을 때, 한 할머니 성도님이 저에게 다가와서 살짝 말했습니다. "목사님보다 사모님이 설교를 훨씬 더 잘해." 사모님은 신학 공부를 한 분이 아닙니다. 이로 봐서 설교는 '은사'이지 무슨 '자격'이 아닙니다. (7793)

23. 초대교회의 영적 성장

기독교에서 건드리면 큰일나는 설교(說敎)가 초대교회 시절에는 어떻게 행해졌을까요? 일단 오늘날과 같은 '설교'와 '설교자'는 없었고 '영적인 인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은 매주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섬기는지를 보여주는 '인도자'들이었습니다.(행3:20, 행5:42, 행9:20, 갈1:16, 골1:27-28)

만일 설교자가 그 설교를 듣는 사람들을 그 설교한 대로 '영적인 세계'로 인도하

지 못한다면, 그런 설교는 아무리 많이 하고 많이 들어도 소용없는 공허한 소리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런 공허한 설교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인도할 줄 아는 '영적인 인도자'가 필요합니다.

초대교회는 '지체간의 서로 권면'과 '지체간의 상호 사역'을 통해서 영적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히3:12-13, 히10:24-26에서 '피차' 또는 '서로'라는 말이 강조되어 있음을 주목해야 합니다. 가르침이 오늘날과 같은 전문 '설교'가가 설교를 하는 형태가 아니었음을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오늘날의 '설교'는 1세기 초대교회와는 한참 동떨어진 사람들이 만든 '장로의 유전'입니다.

'설교'는 3-4세기 그리스, 로마 수사학의 자궁에서 잉태된 신성한 소입니다. 인도에서는 소를 신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소는 건드려서는 안됩니다. 괜히 건드렸다가는 골치아파집니다. 그래서 윌 듀란트라는 신학자는 설교를 가리켜 '건드렸다간 큰일나는 개신교의 신성한 소'라고 했습니다. 교회라는 외양간 안에서 화가 잔뜩 난 황소가 우리를 노려보고 있습니다. (7794)

24. 설교의 미래

기독교에서 건드리면 큰일나는 설교(說教)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저는 아직도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새로운 교회'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그것은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마9:27)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교회의 본질은 지켜나가면서 사회 변화에 따른 새로운 페르다임으로 시도되는 imaginarychurch(개념적교회)입니다. 네트워크화된 전 우주적 교회로서 센터 역할을 하는 아주 작은 상징적인 공간만 있고, 교회 조직도, 건물도, 아무것도 없으면서도 존재하는 교회입니다. 설교는 어떻게 하느냐? 한 사람이 매주 똑같은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교파의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들을 매주 섭외하여 매주 다른 사람이 매주 다른 설교를 합니다.

사실 '설교'만큼 쉬운 게 없습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라고 한 복음은 아주 단순하고 명료하기 때문입니다. 설교자가 새로운 내용을 창작하지 말고, 그냥 성경이 가르치라고 한 것만 가르치면 됩니다. 멋진 설교를 하려고 인공조미료를 듬뿍 뿌리면 처음에는 맛있게 느껴지나 나중에는 오히려 영혼을 상하게 합니다. 그래서 '순수 복음, 순혈 복음'만 전하면 설교는 간단합니다.

'빌립(평신도 집사)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 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행8:5-8) 지금까지 기독교에서 건드리면 큰일나는 설교(說教)를 살짝 건드려 보았습니다. (7795) 끝.

기독교 사명자는...

1. 비참함을 정도로 겸손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가장 잘 감당한 사명자로 바울을 1등으로 꼽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을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행20:19) 삶 이었다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순교를 눈앞에 둔 상황에서 자신이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고백합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들은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까?

사명자는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이 ‘겸손의 삶’ 이었다고 고백합니다.(행20:19) 겸손은 희랍어 원어적 의미로 보면 ‘비참’이라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사명자가 감당해야 하는 첫 번째 자세는 ‘비참할 정도로 겸손’해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비참할 정도로 겸손한 사람이었기에 그의 설교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겸손(謙遜겸비Humble)는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없는 죄인인 것을 알고 스스로 자랑하는 것을 버리고 낮은데 처하여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마음의 자세입니다.(대하33:12, 대하34:27) 예수님은 자신이 겸손한 분이라고 말씀하셨고(마 11:28-30)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마18:14)

오늘날 많은 사명자들이 많은 신도들을 거느리고 설교를 하다 보니 자신이 위대한 인물이나 된 것처럼 착각하고 자신의 목을 기린처럼 높이 세우며 빠깁니다. 저 는 목을 높이 높이 세우다가 푹 부러져버린 ‘부러진 기린 목’을 부지기수로 봤습니다. 사명자의 첫 번째 덕목은 겸손 겸손 또 겸손입니다. (7862)

2. 피눈물을 흘리며

사명자는 눈물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이 “...눈물이며...”(행20:19)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신약 대표 추남(구약 대표 추남은 엘리야)이며, 키가 작고 배가 나오고 머리는 대머리에... 음... 이것만 가지고도 또로록 눈물이 나네요. 바울은 만성적인 눈병에, 말라리아에, 편두통에, 간질 및 언어 장애라는 ‘가시’가 있어서 하나님께 제발 좀 고쳐달라고 기도를 세게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고후12:9)라고 하시며 안 고쳐 주셨다고 합니다.

자신의 콤플렉스(complex) 때문이었을까요? 바울은 불같이 버럭! 하는 성격에

기어코 끝을 보는 집착과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혈한 같은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스테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는 현장에서 스테반의 옷을 지키고 있었으며(행 7:58),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가두려고 다메섹까지 달려갈 정도로 위협적이고 살기 등등한 인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바울은 '신세 한탄과 증오의 눈물'을 흘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사명자가 되면서부터는 '눈물로 영혼들을 섬겼다'(행 20장)고 합니다. 바울의 눈물은 첫째, 구원받지 못한 영혼에 대한 전도자로서의 눈물 이었고 둘째, 전도되었지만 아직 변화되지 못한 영혼들을 향한 목자로서의 눈물이었고 셋째, 사명 감당하기 위한 구도자로서의 눈물이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명자들도 눈물을 흘립니다. 누구는 엄청 큰 성전을 지었다는데.. 누구는 총회장 노회장 한하는데.. 누구는 해외 유학을 다녀왔는데.. 누구는 노후 대책으로 아파트 사서 전세 났는데...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피눈물을 흘립니다. (7863)

3. 시험을 참고(인내)

사명자는 인내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이 "...유대인의 간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인내).."(행 20:19)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에게도 박해를 받았지만 유대인들의 간계, 계략, 음모를 받아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깁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믿는 가르침과 바울의 '예수의 도'가 다르다는 이유로 노골적으로 바울을 대적하고 선교사역을 방해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을 향한 특별한 애정과 깊은 영적 부담감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말도 안되는 비방과 핍박에도 대응을 하지 않고 묵묵히 참고 인내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 회심하기 전에는 유대인들과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방인 선교를 하는 자신을 방해하는 유대인들을 보면서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나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내가 옳다고 막무가내로 주장하여 상대방을 이단으로 몰아 죽였었지.. 이 무지를 어찌하면 좋을꼬!"

예수님을 지식으로 아는 것과 예수님을 실제로 경험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만연한 사신신학(死神神學 Death of God theology)으로는 예수님을 경험하기 힘듭니다. 세속적인 가치가 예수님을 죽여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명자들도 간계를 인하여 시험을 받습니다. 그런데 바울처럼 '사랑의 무저항'으로 인내하며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박해했으니 나도 너를 때려 눕혀버리겠다"고 씩씩대면서 교회의 송사와 분쟁을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가서 고소 고발을 남발합니다. 교회가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심판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7864)

4. 섬김이 뭐여?

사명자는 섬김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이 “주를 섬긴 것과...”(행20:19)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아시아에 온 첫날부터 여러분과 함께 지내면서 내가 어떻게 생활해 왔는지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행20:18)라고 합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보낸 3년 동안 바울 곁에는 항상 사람들이 있었고 바울은 그의 모든 시간과 모든 생애를 바쳐서 그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바울은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들을 섬겼지만 그것을 ‘주를 섬긴 것’이라고 합니다.

바울이 겸손과 눈물과 인내로 에베소교회를 섬겼던 것은 그의 타고난 인격이나 성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을 온통 지배하고 있던 생각은 “나는 지금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섬기고 있다.”는 생각으로 사람들을 섬기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골3:23)

사명자는 최선을 다해서 성도들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성도들도 최선을 다해서 사명자를 따르는 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서로 서로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서로 서로 섬김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람에게서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명자들이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온통 마음 주고 사랑 주고 정성주며 성도들을 섬겼는데, 배신을 당할 때 “내가 어떻게 해 줬는데...” 하면서 서운해 합니다. 그러나 사람을 보고 섬긴 것이 아니라 바울처럼 ‘주님이라고 생각하고 섬겼다’면 섭섭하거나 서운할 것 없습니다. (7865)

5. 거리낌 없는 열심

사명자는 열심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이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행20:20)친 삶이라고 고백합니다. ‘거리낌 없이’를 다른 성경은 ‘망설이지 않고’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많은 방해가 있었지만 그런 것들 상관하지 않고 서슴없이 복음을 전했다는 뜻입니다.

사명자는 무슨 일이 주어져도 민첩하게 행동할 수 있도록 단출하고, 거칠 것이 없으며, 바쁘지 않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당장에 사명자의 헌신이 필요한 일이 생겼는데 스케줄 수첩을 뒤적이며 오늘은 힘들고, 내일은 어렵고, 모래는 곤란하고...

한다면 그가 어떻게 열심히 사명자라고 할 수 있었습니까?

어떤 분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혹시 개인적인 신앙상담도 할 수 있나요?> 저는 <섬기시는 교회의 목사님과 상담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요?>하고 답장을 보냈더니 한참 뒤에 온 답장 <우리 목사님은 너무 바빠요.> 목사님은 어쩌다가 성도들에게 상담할 시간도 없을 정도로 바쁘다는 인상을 줬을까요?

오늘날 많은 사명자들이 ‘전도’를 강조합니다. 교회 표어가 <목숨 걸고 전도하여 내 집을 채우라>인 교회에 유명한 부흥 강사님이 초청을 받아서 갔습니다. “최근 3일 동안 한 번이라도 전도를 하신 분 손드세요.” 아무도 손을 안 들었습니다. “그럼 한 달 안에 한 번이라도 전도하신 분?” 여러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1년 동안 한 번이라도 전도하신 분?” 제법 많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앞에 앉아 있는 담임 목사님만 끝까지 한 번도 손을 안 들었습니다. (7866)

6. 편견 없는 사랑

사명자는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이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행20:21)을 하는 삶이었노라고 고백합니다. 바울 당시에 유대인들은 유대민족 외에 다른 인종들을 “하나님께서 지옥의 불쏘시개로 사용하려고 만들었다”고 말하면서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유대인이거나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똑똑한 사람이나, 미련한 사람이나....’(롬1:14) 가리지 않고 모두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인간에 대한 편견이 없는 사랑의 사람이었습니다.

인간에 대한 ‘편견 없는 사랑’은 사명자가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초대교회에도 야고보서에 보면 부자들과 가난한 자들을 차별한 이야기가 나옵니다.(약2:1-9) 가장 흔한 편견이 부자와 가난한 자들에 대한 편견입니다. 오죽하면 사람들이 “가난하면 교회도 못 나가” 그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교회가 세상 가치판단과는 다른 판단을 한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었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명자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젠가 ‘교회에 시주를 온 중에게 소금을 확 뿌렸다’는 설교를 듣고 귀를 의심했습니다. 대전의 어느 유명한 개그맨 목사님은 불교에 대해 말실수를 했다가 절 앞 현수막에 눈알이 파인 사진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십자가의 고난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라는 편견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구원받을 모든 사람들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구원받은 사람과, 앞으로 구원받을 사람만 있습니다.(7867)

©최용우



복숭아 수확 (사진:최용우)

복숭아 수확

주일 오전 예배를 마치고 교회에서 공동식사를 했는데, 코로나로 공동 식사가 중단된 이후로 “그럼 우리 전의(처가)에 가서 식구들끼리 점심을 먹자.” 한 것이 벌써 1년 6개월 동안 매주 주일마다 처가에 가서 점심을 먹고 있다.

자연스럽게 갈 때마다 집안일을 한가지씩 한다. 오늘은 장모님이 “복숭아를 따라” 하신다. 길가에 심은 ‘천도복숭아’ 나무에 얼마나 열매가 많이 열렸는지 큰 대야로 세 개에 가득 채웠다. 봄 되기 전에 가지치기를 해야 열매가 커지는데 그냥 내비 두어서인지 짙은 열매가 다닥다닥 다닥다닥 붙었다.

한 입 베어물었다가 맛이 시어서 ‘동작 그만’ 했는데... 이걸 그냥 먹을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런데 이 많은걸 다 어떻게 하지?

아내가 뭘 만들지 인선생, 유선생에게 물어보는 중이다.

부모 마음

비오는 날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데 세종한의원 차마 밑에서 제비들도 비를 피하고 있다. 좁은 틈새기에 제비집이 세 채나 지어져 있는 것이 여기가 제비아파트인가?



그런데 제비집 하나에 새끼로 보이는 두 마리가 앉아 있고 그 옆 좁은 난간에 어미로 보이는 두 마리가 앉아 있다. 아마도 새끼들을 올해 부화시킨 것 같다. 새끼들에게 집을 내어주고 자기들은 난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니 사람이나 동물이나 부모는 부모라는 생각이 들었다.

오래전에 어금니가 없어져 버려서... 그래도 어찌어찌 살았는데 식구들이 환갑 기념으로 어금니를 만들어주겠다고 해서 못이기는 척 조금 저렴하게 해주는 치과에 다니며 임플란트를 하는 중이다. 그런데 나 보다는 큰딸의 치아교정을 먼저 해주어야 하는데... 하는 생각에 내 마음이 편치 않았다.

딸1호의 앞니가 제멋대로 자라서 입술이 튀어나와 보이는 것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 것을 모른 척 할 수가 없어 기도하던 중에 우연히 이는 목사님의 소개를 받아 지난주에 교대역 근처 치과에 가서 일단 검사부터 받았다. 치아 4개를 발치해야 한다고 한다. 어떻게든 이참에 아빠랑 같이 치료를 해보자.

그냥 앉아 있어야지

산책을 하는데 발산리 어느 허름한 집 마루에 할머니 한 분이 별을 쪼고 앉아 계신다. 갔다가 다시 돌아오면서 보니 거의 1시간이 지났는데도 똑같은 모습으로 앉아 있었다.

나도 저 나이가 되면? 하고 생각해 보니... 나도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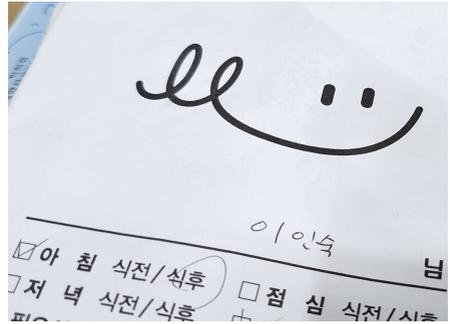
사람들이 보기에 어떤 모습이 가장 아름답고 근사할까? 나는 길가에 자그마한 <최용우 책방>을 만들고 밖에서 안이 잘 보이도록 개방을 해서 창가에 비스듬히 앉아 책을 읽을 것이다. 그리고 밖에는 <책 읽는 모습 사진으로 찍어도 좋아요>라고 작은 글씨로 써 붙일 것이다. 가끔 기도도 하고 다정한 사람들을 마주보면서 정담도 나눌 것이다. 창 밖에서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사진을 찍도록 모델이 되어 줄 것이다. 그렇다고 인위적으로 꾸미지는 않을 것이다.

인복(人福)

아침 식사기도 할때 빼먹지 않고 “오늘도 두 딸들에게 좋은 사람 만나는 복, 좋은 일 만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한다. 살면서 좋은 사람, 좋은 일 만나는 인복보다 더 좋은 복이 어디 있을까?

직장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든 일은 일 자체보다도 상사와의 관계이다. 가장 최악인 것은 비인격적인 상사를 만나는 것이다. 그것도 무슨 ‘완장’이라고 직원들을 마치 종 부리듯 갑질하는 상사를 만나면 재미있게 직장생활을 하기 힘들다.

세상을 조금 살아보니 가장 좋은 복은 좋은 사람을 만나는 ‘인복(人福)’이었다. 그래서 내 자녀들은 인격적인 신앙인 상사를 만나서 일하는 것이 재미있고, 또 좋은 일을 해서 많은 이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삶 살기를 매일 매일 기도한다.



새로운 세상

농협 하나로마트에 갔다가 반으로 잘라서 파는 ‘적채’의 속 모양이 너무 이뻐 사진을 찍었다. 마치 커다란 나무 한 그루가 동그란 양배추 안에 미니어 처처럼 박혀있는 것 같다. 적채를 땅에 심고 잘 가꾸면 저렇게 잘생긴 동그란 나무로 자라지 않을까?

적채(적양배추)는 서양에선 3대 장수식품이며, 과당·포도당·식물성 단백질·비타민C,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안토시아닌이 풍부해 별명이 ‘항산화 덩어리’이며, 항궤양 효과를 나타내는 캐비진이란 비타민U 를 함유하고 있다고 한다.

적채가 이렇게 기특한 놈이었군. 아내가 적채를 썰어서 샐러드를 잘 만드는데 군소리 안 하고 무조건 잘 먹어야겠다. 겉모양만 보고는 잘 몰랐었는데 이렇게 짝쫄개어 속을 보여주니 적채 속에는 새로운 세상이 들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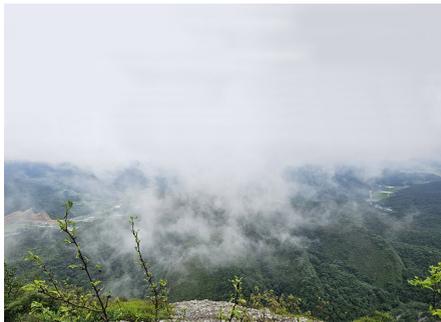
선진국 회계

우리나라 경제 규모는 GDP 기준으로 세계에서 11번째 선진국이다. 그러나 삶의 질을 평가하는 행복 지수는 세계 58위이다. 경제가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는 소위 금수저 몇몇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국민들은 아주 살기 힘든 나라이다.

행복 지수 상위권 국가들에는 우리나라에 없는 ‘회계’가 있다. 회계(hygge)는 편안함, 따뜻함, 아늑함, 안락함을 뜻하는 덴마크어, 노르웨이어 명사이다.

선진국은 하루중 특정한 시간에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또는 혼자서 보내는 소박하고 여유로운 시간, 일상 속의 소소한 즐거움이나 안락한 환경에서 오는 행복함을 매일 즐긴다.

우리나라에 ‘안락함을 제공하는 카페’가 유행인 것은 우리에게도 회계가 필요하다. 이는 증거이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느냐 마느냐는 앞으로 ‘회계’가 얼마나 국민들의 일상 가운데 자리를 잡느냐에 달려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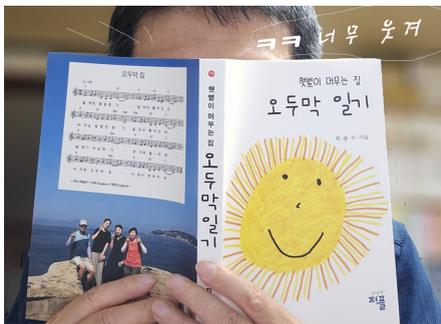


책을 또 맹글었네

택배로 도착한 <오두막 일기>를 아내에게 보여줬더니 뒤적뒤적 자기의 이야기가 나온 부분을 가장 먼저 찾는다. “이거 ‘찬장’인데 ‘찬장’이라고 오타가 냈네. 그리고 이건 좀 빼주지...” 하면서 검열에 들어간다. 쥘!

원래 사람은 자기중심적이다. 단체 사진에서도 가장 먼저 자기 모습을 찾는다. 자기가 잘 나왔으면 “사진 잘 찍었네” 하지만, 자기의 모습이 마음에 안 들면 아무리 작품 사진이라도 “사진을 왜 이렇게 못 찍었어?” 하면서 못마땅해 한다.

옛날에 우리 어머니는 책을 가져다 드리면 “하이고매~ 책을 또 맹글었네~” 하면서 책을 들고 좋아하셨었다. 책 내용이 뭔지도 모르면서 그냥 책 자체를 반겨하는 모습이 너무 좋았다. 그래서 어머니 보여 드리려고 더 열심히 책을 만들었었다.



무당벌레

뭐든 키워보고 싶어했던 아내가 화분에 심은 방울토마토 잎사귀에 어느날 보니 기하학적인 무늬가 새겨져 있었다. 전에도 간혹 그런 잎사귀가 있었는데 오늘은 보니 거의 3분의1 정도나 되었다. 범인은 무당벌레가 지나가면서 녹즙을 빨아 먹은 자국이다.

그동안 눈에 보이는 대로 무당벌레를 잡아서 처형시켜서 한동안 안 보이더니 어디 좀 길게 외출을 한 사이에 자기들끼리 비상 연락망을 돌렸는지 왕창 빨아먹고 사라져버렸다. 이런 약삭빠른 놈들!

무당벌레는 진딧물같은 벌레들을 잡아먹는 '육식(?)' 곤충인데, 특이하게 등쪽에까만 점이 28개인 '이십팔점박이무당벌레'는 채식주의자라고 한다. 주로 토마토나 가지의 잎사귀를 갉아 먹고 잎사귀 뒤에 알을 낳는다고 한다.

음.. 이젠 등쪽에 점 개수를 세어보고 28개인 놈들만 체포를 해야겠군!



가장 더운 날

오늘은 올해 가장 더운 날이다. 컨테이너 위의 고양이도 햇바닥을 내놓고 헉헉거리고 있다. 불러도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정신이 나간 듯한 표정이다. 날씨가 이렇게 더운 것은 지구와 태양과의 거리가 1년 중 지금이 가장 가깝기 때문이다.

지구가 태양을 1년에 1바퀴 도는데 타원형으로 돌기 때문에 지구와 태양의 거리가 가까워지기도 하고 멀어지기도 한다. 지구가 23.5도 기울어져 자전할 때, 태양 빛을 받는 각도에 따라 빛을 받는 시간과 면적이 달라진다. 이것이 4계절이 생기는 원인이다.

태양이 적도 바로 위에서 비출 때를 춘분(春分)추분(秋分)이라고 하며 점점 위로 올라오면 봄, 점점 아래로 내려가면 가을이다. 1년 중 추분 한달전은 태양빛이 가장 많이 지구에 도달하는 시기이고 우리는 그것을 "아이고매, 더운겨. 여름이다"라고 한다. ©최용우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산행

▲제662회 추월산(731m 담양)

추월산(秋月山)은 봉우리가 보름달에 닿을락말락 할 정도로 높다하여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옛날에는 줄을 타고 기어올랐던 산인데, 1,122칸이라는 엄청난 계단을 설치해서 계단 지옥을 경험해야 한다. 등산객의 편의를 위해 만든 계단인데, 과한 계단은 다리에 크게 무리를 준다. 올해 들어 낮 기온이 가장 높은 날 땀을 뻘뻘 흘렸다. 추월봉 아래에 보리암(菩提庵)이 있다. 사다리를 이용해야만 오를 수 있는 절벽 끝에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물건을 운반하는 곤돌라까지 설치되어 있고 1층을 카페로 운영한다. (2024.7.5.최용남 동행)



▲제663회 비학산299(일출봉252m) 2024.7.12

▲제664회 마이산(687m 진안)

대중교통으로는 접근할 수 없는 곳이라 차를 운전하여 내려갔다. 가위박물관 주차장에 차를 대고 비옷을 입고 출발 금강과 섬진강의 시발점이 있는 천왕문까지 올랐다. 미끄럽기는 했지만, 암마이봉을 오르면서 운무가 발아래로 떠다니는 모습이 장관이었다. 정상 인증을 하고 전망대에서 뜨거운 커피를 마시며 시시각각 구름이 세상을 보여줬다 감추었다 하는 거대한 쇼를 관람했다. (2024.7.19.최용남 동행)



▲제665회 동림산 (457m 세종) (2024.8.2)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산행은 2004년 1월 10일 시작되어 1주일에 1회 산행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산행을 하고 싶으신 분이 있으면 연락 주세요. 날짜를 맞춰 동행하겠습니다. 오르고 싶은 산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달려가겠습니다. 010-7162-3514 최용우



우리의 만남은 맛남입니다~

①몽개구름 타고 오는 처서(處暑)

처서는 '땅에서는 귀뚜라미 등에 업혀 오고, 하늘에서는 몽개구름 타고 온다.'라고 할 정도로 여름이 가고 가을이 드는 계절의 엄연한 순행을 드러내는 절기입니다. '처서가 지나면 풀도 울며 돌아간다.' 처서가 지나면 모든 식물은 생육이 정지되어 시들기 시작한다는 속담입니다. '처서비(處暑雨)에 십리에 천석씩 감한다.' '처서비에 독 안에 든 쌀이 줄어든다.'라는 말은 밝고 강한 햇볕을 받아야 나락이 입을 벌리고 꽃을 피우는데, 빗물이 꽃에 젖으면 수정이 힘들기 때문에 생긴 속담입니다. 우리는 그런 처서 절기를 살고 있는 중입니다.



②표지사진 이야기

야기 고양이 두 마리가 오래된 나무를 오르락 내리락 하며 꼬리잡기를 합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평화롭고 아름답네요. 고양이는 공간을 수직으로 느끼기 때문에 타고 올라갈 물건이 없으면 자기가 엄청 좁은 집에서 살고 있다고 느낀다지요. 바깥서 살아가는 길냥이들은 나무를 잘 타니다. 고양이에게는 더 높은 나무일수록 더 고급 빌딩이므로 더 신나게 나무를 타니다. 나무에 이끼가 가득한 것을 보니 저 마을은 약간 습한 지역인가 봅니다.

③도서출판 소식

〈신간〉 마가-예수어록 (어록시리즈2) /324쪽 15000원 -2024.8.29.출간예정
84.일상의 기적 (시12) /컬러210쪽 15000원-2024.7.30. 출간
83.오두막 일기 (일기15) /컬러396쪽 24000원-2024.6.28 출간
82.성동-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햇별23) /318쪽 14000원-2024.5.30 출간
81.마태-예수어록 (어록시리즈1) /692쪽 28000원-2024.3.19. 출간!
80.아내에게 바치는 시(시11) '컬러216쪽 15000원-2023.12.26. 출간!
인터넷<교보문고>에서 '최용우'나 '책 이름'으로 검색하면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교보문고>를 통해서 현재 79권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살림 드러내기 -2024.7월 재정결산

2024년 7월(1-31일)에 후원하여 주신 분들입니다.(호칭 생략. 가나다순)
고종찬 김광현 김상식 김준경 박근식 박기순 박승현 박신혜 양희창 오창근
옥치오 이상호 이인숙 이재익 이진우 임대근 장기갑 정효숙 정훈 지경희
최상복 한주환 구글 새벽기도 안디옥교회 함안중앙교회
총 26분이 1,252,730원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주님! 천사들을 동원하여 햇별같은이야기에 필요한 물질을 공급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천사로 부름받은 분들에게 큰 은혜를 부어 주소서!
늘 생각하면 마음을 울컥하게 하는 여러분들의 정성... 정말 감사드립니다.

○햇별같은이야기가 이 시대의 땅끝인 사이버 세상에서 악한 영들과, 사이버 이단들과, 유사 기독교로 미혹하는 영들을 대적하여 영적 전쟁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터넷신문서교헌금'을 작성해 주십시오. 우리는 후원자들을 '거들 짝'이라고 하며, 매일 이름을 부르며 중보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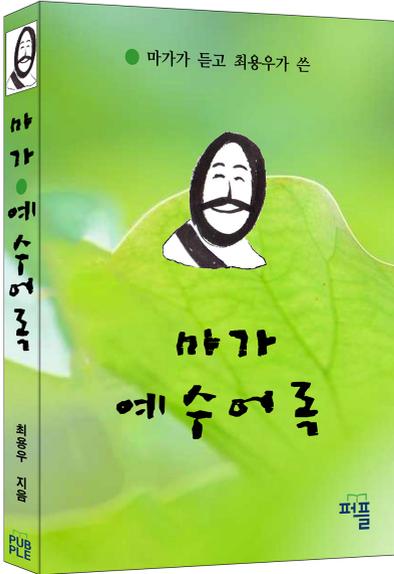
✧우리의 하는 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다음과 같이 일하십니다. 우리의 가장 크고 첫째 되는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일' 자체에 있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도록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데 더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다음과 같은 일을 합니다.

- ①햇별사역 -인터넷신문 햇별같은이야기 2024.8.21일까지 7885호 발행
- ②문서사역 -월간<들꽃편지>, 후보자료파일, 전자자료 발행
- ③출판사역 -그동안 85권의 책을 출판하였습니다.
- ④기도사역 -매일 후원자들을 위해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 ⑤나눔사역 -8곳을 후원합니다.(독거인, 문서2, 인터넷, 북방선교2, 선교사, 난민)
- ⑥피정사역(준비) -기독교에서는 리트릿(retreat)이란 이름으로 피정을 합니다. 우리는 과거에 몇 년 동안 작은 흙집 한 채를 빌려 <햇별같은집>이라는 이름으로 피정사역을 했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기독교식 피정의집을 지어 기독교목회사역자들이 언제든지 와서 편히 쉬어갈 수 있게 하고 싶습니다.

(피정사역을 위한 특별 후원헌금구좌 하나은행117-891254-32307최용우)

●월간<들꽃편지>는 따로 정해진 구독료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원하는 분들에게 그냥 보내드립니다. 다만, 신청은 반드시 본인이 하셔야 합니다. 지난호가 더러 남아있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에게 챙겨 보내드리겠습니다.



 **8월 29일**
새로 나온 책

예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 마가복음에서 빨간색으로 인쇄된 예수님의 말씀 구절만 모두 뽑아 아침마다 한 절씩 묵상하고 주신 은혜와 감동과 능력을 받아 적어 모았습니다.

최용우 324쪽 15000원
교보문고 퍼플

저는 어느 날 4복음서를 읽다가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모두 묵상해 보고 싶었습니다. 초대교회 시대에 예수님의 말씀을 모아놓은 ‘어록집’이라는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4복음서 가운데 가장 먼저 쓰여진 마가복음은 마가가 그 어록집을 기초로 해서 썼습니다. 그리고 마태와 누가는 어록집과 마가복음을 기초로 해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씁니다. 신약학자들은 어록집이 복음서의 원천이라고 해서 Q문서(Quelle) 라고 합니다.

저는 현실적으로 방대한 양의 성경을 모두 묵상할 수는 없으니 그중에 ‘예수님의 말씀’만이라도 모두 묵상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빨간색으로 인쇄가 된 ‘예수님의 말씀’ 구절을 모두 뽑아놓고 하루에 한 절씩 묵상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은 텍스트(문자)가 아니라 ‘살아 있는 힘’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평면적이 아니라 입체적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히4:12)라고 합니다.

이 책을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 있는 음성’을 들어보세요.

 (인터넷 교보문고)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최용우 저서



일출봉에 햇별이 짱하오

세종시 금남면 용포쑥티마을 뒷산 비학산 일출봉을 오를 때마다 한 편씩 시를 썼습니다. 꽃과 벌레와 동물과 사람들과 그리고 예수님과 나는 얘기들이 정겹고 아름다운 시가 되었습니다.

13,600원 210쪽(컬러)퍼플



일상의 기쁨

하나님은 우리의 평범한 일상 가운데 '기쁨'을 가득 숨겨놓으셨습니다. 이 시집은 일상에서 찾은 평범하면서도 시시하면서도 가만히 마음을 열어주고 보듬어주는 담백한 시집입니다.

13,400원 210쪽(컬러)퍼플



아내에게 바치는 시

저는 결혼을 하면서 '아내에게 바치는 시 100편'을 써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결혼 30년만에 200편의 시를 장미꽃과 함께 바칩니다. 긴 시간 함께 살아준 진주 같은 아내에게 사랑도 함께 전합니다.

15,000원 220쪽(컬러) 퍼플



일상의 기적

기적은 하늘을 날거나 바다위를 걷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걸어다니는 것입니다. 우리의 평범한 일상 가운데 살짝 숨어있는 소중한 기적의 순간들을 찾아 적어 본 담백한 시집입니다.

15,000원 210쪽(컬러) 퍼플



따뜻한 밥상-아침밥1

육신의 건강을 위하여 날마다 정해진 시간에 밥을 먹고 맛집을 찾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날마다 밥을 먹어야 합니다. 창세기부터 매일 한 장씩 1년 동안 역대상 11장까지 묵상합니다.

14,100원 400쪽 퍼플



따뜻한 밥상-아침밥2

허릿동안 나를 든든하게 지켜주는 따뜻한 말쑥 밥상을 차렸습니다. 밥 거르면 몸이 상하듯 말쑥 밥상도 거르면 안 됩니다. 밥 드세요 역대상 12장부터 예언서 전체를 1년 동안 묵상합니다.

17,300원 398쪽 퍼플

❀ 여기에 소개된 책은 <인터넷 교보문고>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살림! 들꽃편지는 화려하지는 않지만 주님 앞에 활짝 핀 꽃과 같이 아름답고 향기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이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가짜가 진짜처럼 행세하고 진짜가 인정받지 못하는 이 시대에, 힘들지만 진실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햇별같은이야기 <https://cyw.pe.kr> *들꽃편지 <http://cyw.kr> *들꽃슈터(피징) <http://cyw.co.kr>

*이메일 9191az@hanmail.net ☎ 010-7162-3514(문자로 먼저 용건을 남겨 주세요)

*후원구좌 국민은행 214-21-0389-661 농협 138-02-048495 하나은행 117-891254-32307

*30083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용포쑥티2길 5-7번지 들꽃편지 햇별같은이야기

들꽃편지 제667호 *발행.편집인: 최용우 (1990.1.1.창간)